



오대산 월정사 입구는 높이 30m인부의 전나무들이 일주로부터 큰 절까지 숲 터널을 만들고 있다.

자장이 문수보살 친견 기도 하던 곳

신라 자장이 이 땅에 불보살이 상주하고 있다는 불국토(佛國土) 신앙을 세운 것은 선덕여왕 무렵이었다. 자장이 굳이 오대산을 성지화한 것은 오대산이 고구려와의 접경지였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의 민심을 다독여 어럽사리 얻은 땅을 유지코자 했을 것이다. 월정사의 위치는 자장이 문수보살 친견을 기도하며 머물렀던 모옥(茅屋)의 옛 자리로 전한다.

월정사 주변의 자연생태를 돌아보는 일은 일주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통상이다. 활엽수를 수하에 거느린 전나무 숲길이 일주문부터 시작된다. 높이 30m 안팎의 전나무들이 큰 절까지 숲터널을 만들고 있다.

월정사 주변의 전나무 숲은 역사의 숲이다. 일본강점기에는 동양척식회사가 반강제적으로 월정사 사찰림 일부를 매입해 벌채를 했고, 한국전쟁 중에는 월정사와 함께 전화(戰火)에 휩싸였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7억 m에 달했던 월정사 주변의 산림축적이 일제 강점기 동안 2억 m로 줄었다고 한다. 전쟁 중에 월정사는 칠불보전을 비롯해 17종 건물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숲도 많이 사라졌다.

이 숲길 구간은 국립공원측에서 정기적으로 식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의 주요 활엽수들은 갈참나무, 말참나무, 고로쇠나무, 층층나무, 한박꽃나무, 불푸레나무, 신나무, 단풍나무, 딱총나무, 쉬향나무, 난티나무, 붉은병꽃나무 등이 있는데, 쉬향나무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식물구체학적 특정종(3급)이다.

숲은 소리와 함께 숲이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이 모두가 숲속에 사는 신령들이다. 전나무 숲을 돌아 흐르는 월정천은 비로봉(1,563m)과 두로봉

전나무 숲길 불보살 품같이 포근

(1,422m) 사이의 여러 계곡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상류이다.

월정천의 기반암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이다. 반야교에서 금강연(金剛淵)을 지나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은 이들이 부식된 자갈과 바위가 있어 계류성 어종들이 사색하기 좋은 조건을 보이고 있다. 기록에 금강연에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근래 보고된 바는 없다.

이 수역에서 관찰되는 민물고기로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강모치, 참중개, 새코미꾸리, 격지, 통가리 등을 비롯해 돌고기, 새미, 미꾸라지, 대륙중개 등이 있다. 월정천에 3급수 어종인 미꾸라지가 나타나는 것은 무분별한 방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꾸라지는 이끼조차 끼지 않는 1급수 월정천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모나지 않은 자연지형 배려한 가람

월정사가 있는 자리는 동대 민월산 정기가 내려와 월정천 앞에서 모인 자리이다. 그 자리에 적광전(寂光殿)을 본전으로 앉히고 좌우로 전각들을 펼쳤다. 이런 가람배치는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를 중심축

으로 하는 전통배치와는 조금 다르다. 자연지형을 우선한 배례이다. 월정사의 분위기가 모나지 않고 둥근 느낌을 주는 것도 그런 데서 비롯된다.

적광전 동방에는 구름 무늬가 있는 운문전(雲紋門)이 깔려 있다. 그렇게 해놓으니 적광전은 자연적으로 '구름 위의 집' 즉, 천상의 보궁이 되었다. 화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적광전 옹마루 좌우에는 치미를 올려놓고, 별당 옹마루 좌우에는 취두를 올려놓았다.

근래에 적광전 앞 팔각구층석탑 주위에 국화과 식물인 별개미취를 심었다. 탑이나 석등과 같은 석조물 주위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일본식 조경법이다.

경내에 세월단풍나무(공작단풍), 금송, 일본목련, 노란해당화 등 원예종 조경수를 심은 것도 그렇거니와 나무들마다 가위질을 해서 인공적 모형을 만든 것도 상투적인 일본식 조경이다.

전각 뒤 민월산 자락은 붉은 수피가 인상적인 육송들이 자리하고 있다.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각과의 사이에 머리 깎듯 내화수림대를 조성했다.

웅금루를 나오면 그윽한 전나무숲을 또 만난다. 오로지 전나무로만 이루어진 단순림이다. 1929년 조선 불교 중앙교무원에서 낸 사진첩 <조선사찰 31본산>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인 긴점박이올빼미가 동대 관음암 주변에서 관찰됐다. 이기섭 촬영

'월정사' 편에는 이 전나무 숲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월정사 전나무숲의 역사를 단정 짓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월정사 부도전은 월정사에서 상원사 가는 길로 500m 가량 떨어진, 아늑한 전나무 숲속에 자리잡고 있다. 부도전 주변은 전나무 군락이 몇 그루의 소나무와 함께 병풍숲을 이루고 있다.

부도전 앞으로 446번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다. 1960년대 군작전도로로 개설된 이 길은 상원사 앞을 지나 흥천군 내면 명계계곡으로, 오대산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비탈이 가파르고 험난하여 개통 후 거의 방치되다시피 버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방 자리

오대산의 오대산양은 가장 이후 이 산을 찾은 보천과 효명 두 수도자에 의해 퍼졌다. 월정천을 사이에 두고 부도전 건너편에 남대 지장암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비구니 선방이 이곳에 있다. 지장암은 전나무 대신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지장암 들머리에는 스님들이 인공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속새가 밭을 이루고 있다. 속새는 고생대 데본기에 전 지구를 뒤덮었던 원시식물로, 오대산의 습하고 기름진 토양에서 자주 관찰되는 식물이다. 줄기는 속이 비어 있으며, 마디와 능선이 있다.

오대산엔 다양한 파충류들이 살고 있는데, 누룩뱀도 그 중 하나이다. 뱀들은 먹이를 사냥한 후 배가 부르면 따뜻한 곳을 찾아 몸을 데운다. 그래야 소화 잘 되기 때문이다.

다시 길을 건너오면 동대 관음암까지 숲길이 나온다. 등산객도 관광객도 찾지 않는 호젓하고 그윽한 숲 속에 자동차 길이라니... 이 길은 원래 한 두 사람 겨우 비켜지나갈 좁은 오솔길이었으나, 관음암에서 나무 대신 기름과 같은 화학연료로 에너지를 바꾸면서 그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부득이 자동차길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1.5km의 숲길은 포장과 비포장길이 반반이다. 경사진 곳에만 선택적으로 포장되어 있다. 숲속의 포장이 반환경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또한 비탈길의 토양유실을 막기 위한 고육자책이다.

멸종위기 긴점박이올빼미 관찰

관음암으로 가는 숲길 주변은 활엽수 바다 가운데 우람한 전나무들이 돛대마냥 등성등성 서 있는 형태이다. 여우버들도 관음굴 식물 가운데 하나이다. 여우는 사라지고 여우버들만 오대산에 남았다.

숲바닥에는 관음들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관음굴은 생태가 비교적 특이해서 관음의 키가 80cm에 이른다. 새의 깃털처럼 생긴 잎은 밝은 초록색을 띠고 있지만, 만져보면 딱딱한 가죽질이다.

오대산은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특이하여 35종이나 되는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월정사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는 모두 28종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지정종으로는 오색딱따구리, 매사촌, 검은등딱새, 병어리딱새 등이 확인됐고, 관음암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인 긴점박이올빼미를 관찰했다.

긴점박이올빼미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하지만, 간혹 흐린 날에도 사냥에 나서 들쥐, 작은 조류 등을 잡기도 한다. 백두산, 설악산 등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보기 드문 텃새이다.

글·사진=김재일(시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즐거움 여름휴가를 여시아문 추천 도서와 함께..

<p>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p> <p>전환수용을 위한 선한영양 초창기 대표작</p> <p>禪 너는 누구냐</p> <p>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공명론 메시지로 화제가 된 신작. 새로운 삶의 열정이 수놓았다. 영성 스님들의 수필인 수필 같은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통해 선한영양 방법론 내용도 책으로 되어 나왔다.</p> <p>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역음</p>	<p>대하 로그 다큐멘터리 신앙오천축국전</p> <p>헤초따라 5만리</p> <p>우리 15년 동안 갈래갈래 10여 개국을 떠돌고 머물며 발걸음으로 완성한 신앙오천축국전</p> <p>신국판 302쪽 / 8천 296쪽 값 22,000원 / 김규현 지음</p>	<p>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p> <p>선어삼백칙</p> <p>지금 나에게 절한지는, 이것이 바로 선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면, 조금의 충결이 나 무척움이 없다.</p> <p>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저자서 譯</p>	<p>잊혀져 가는 폐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p> <p>잊혀진 가람탐험</p> <p>폐사지 보존 방안 상정추진까지 이렇게 만들었다. 역사로 서진 장지현이 폐사지를 직접 답사하여 책으로 엮었다.</p> <p>B5 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현 지</p>	<p>'선방'에서 벌어지는 사건</p> <p>선방 일기</p> <p>'자비'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p> <p>B6 / 136쪽 / 값 5,000원 지혜 스님 지음</p>	<p>'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처다!</p> <p>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p> <p>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 성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소개한 스님이 직접 번역한 책.</p> <p>B6 변형 / 178쪽 / 값 4,500원 초월 스님 번역</p>
<p>집착은 마음의 적!</p> <p>스님이야기</p> <p>수행·복지·포교·교육 등에 매진하며, 구도에 힘쓰는 스님들의 지열한 삶과 열정이 수놓았다. 영성 스님들의 수필인 수필 같은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통해 선한영양 방법론 내용도 책으로 되어 나왔다.</p> <p>448쪽 / 값 12,000원 지복 지음 외</p>	<p>참선자의 필수도서</p> <p>참선요지(參禪要旨)</p> <p>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내태 그리고 마다의 차이. 수행자의 오묘한 원리를 쉽게 풀어 설명한다. 참선의 오묘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p> <p>B6 변형 / 278쪽 / 값 5,500원 허운화상 번역 / 대성 옮김</p>	<p>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p> <p>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p> <p>2,600년 전의 지혜 21세기에도 유효한 내침반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p> <p>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규현 지음</p>	<p>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p> <p>황금빛 봉황이</p> <p>비단털이 일러준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 황금빛 봉황이 선이(禪)를 만나. 위대한 문체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 특이한 단긴 실체의 묘미를 오직(佛)에 모두 담겨의 우아와 화를 배웠다.</p> <p>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물 지음</p>	<p>조계종 수행의 길</p> <p>간화선</p> <p>이론보다 실천, 평범보다 법을 위주로 하여 선의 본질을 제시한다.</p> <p>A5 / 436쪽 / 값 15,000원 불학연구소</p>	<p>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p> <p>21세기 붓다의 메시지</p> <p>문구의 법왕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선공공덕이 많은 선불지 선어인들은 이 책을 의의하지 말고 말씀지니라</p> <p>A5 / 300쪽 / 값 15,000원 지재민 역</p>

www.yosiamun.com

여시아문 이메일 : yosiamun@buddhania.com 전화주문 : 02)2004-8219, 737-0695 팩스주문 : 02)737-0696